

제18회 언론인권상 심사평

[총평] 고령사회에서의 소수자 인권 신장이 주요 의제

제18회 언론인권상은 2019년 한 해 동안의 신문, 방송, 인터넷 매체의 제작물 중에서 공모에 응한 작품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전년에 비해서는 다소 줄어든 총 28편의 공모작 중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2월 18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선정하였습니다.

응모작으로는 중앙방송이 15건, 지방방송이 6건, 중앙신문이 5건, 지방신문이 1건, 잡지 1건으로 방송이 75%를 차지하였고, 그중 중앙방송이 71%를 차지하여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러나 SBS가 6건, MBC가 4건, MBC경남이 2건, 한겨레가 2건으로 미디어 수로 보면 중앙방송이 7, 지방방송이 5, 중앙신문이 4, 지방신문이 1, 잡지가 1로 편차는 다소 줄어드나 방송의 압도적 위치는 변화가 없습니다.

6·25 전쟁 당시 국군, 인민군, 미군, 좌·우익에 의한 학살을 조명한 MBC 강원방송국의 다큐멘터리 <숨>, 1948년 4.3 사건 당시 군법 재판에서 ‘국방경비법 위반 및 내란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이들 중 다섯 노인의 증언을 통해 70년 전의 일을 재구성한 EBS의 <바람의 집>, 5.18 진상규명 연속보도를 한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MBC 마산이 1979년 10월 ‘유신’을 종식시킨 시민의 항쟁의 현장 마산을 논픽션 드라마로 재현한 <79년 마산>, KBS 부산이 배우 유재명과 함께 부마민주항쟁의 흔적을 따라가며 독재와 폭력의 시대에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한 사람들을 조명한 <1979 부마>, 10년 전 발생했던 용산참사, 독립운동가를 학살한 친일파들, 민간인 학살과 사찰..대물림된 국가폭력, ‘생지옥 개척단’으로 불린 ‘서산개척단’, ‘죽음의 복지원’ 진상 규명을 막는 세력들을 5부작으로 엮은 MBC의 <스트레이트>, 32년만에 무죄선고를 받고 위자료까지 받았으나 경매절차로 집을 잃고 거리에 내몰릴 위기에 처해있는 피해자들을 밀착 취재한 연합뉴스 TV의 <인혁당 재건위 피해자의 눈물> 등 7편은 “과거사와 국가폭력의 규명”을 주제로 하였습니다.

탈북 청소년의 교육실태를 심층 보도한 EBS의 <두 번 버림받은 아이들>, 탈북 엄마의 마지막 눈물을 다룬 KBS의 <시시기획 창>, 난민 불인정을 받은 이라크인 유스라 가족이 겪는 고통을 취재한 MBC의 <인도적 체류자 리포트>, 창간 20주년을 맞아 경남지역에 거주하는 12만명의 외국인의 애환을 보도한 경남도민일보의 <사람꽃>, 제주도에서 집중 조명된 300여명의 예멘난민의 현재를 다룬 시사IN의 <예멘난민 1년 보고서> 등 5편은 “탈북자와 난민”을 주제로 하였습니다.

가족 살해 후 자살하는 가장과 370명의 무연고 죽음을 연속 보도한 국민일보의 <비정상적 죽음 기획 시리즈>, 고령사회 진입과 장기요양보험제도 10년을 넘은 시점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을 따 요양원에 취업하여 8개월간 취재하여 완성한 한겨레의 <대한민국 요양보고서>, 중환자실이 부족해 제주도 내 병원을 헤매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현실을 고발한 제주 KBS의 <기다리다 죽는 사람들>, ‘불쌍한 장애인’의 프레임을 벗어나 장애인 자신이 직접 취재를 하고, 지자체와 법원까지 장애인권 감수성이 낮다는 것을 고발한 MBC의 <장애인 인권 증진 리포트> 등 4편은 소외계층, 고령자, 중환자, 장애인 등 우리 사회의 “Minority 문제”를 주제로 하였습니다.

고 김광열 선생이 40여년간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일본 후쿠오카현 지쿠호와 홋카이도에서 추적 보도한 경남 MBC의 <끌려간 사람들>, 2019년 3.1운동 100주년 기념의 해를 맞아 독립운동을 재조명한 다큐멘터리 <역사의 빛 청년> 등 2편은 “일제의 억압과 독립운동”을 주제로 하였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삼성전자 산업재해 관련 언론에 의해 2차 피해를 당한 사례를 다룬 KBS의 <거리의 만찬 - 언론에 당해봤어?>, 가수 설리의 죽음을 둘러싼 SBS <그것이 일고싶다 - 루머의 루머의 루머, 누가 진리를 죽였나> 등 2편은 “언론에 의한 인권 침해”를 주제로 하였습니다.

그밖에 머니투데이의 <국정원 민간인사찰>, 투데이신문의 <전태일, 노동 그리고 인간선언>, EBS의 <놀이의 힘>, EBS 라디오의 <백성문의 오천만의 변호인>, EBS의 <가족의 탄생>, 부산 MBC의 예산추적프로젝트 <빅벙커>, MBC의 조선일보 家와 관련된 <호텔사모님의 마지막 메시지>, 한겨레의 <텔레그램 비밀방 불법 성착취> 등이 주목을 끌었습니다.

이러한 경향을 종합하면 2020년 언론의 가장 큰 관심은 2019년 언론의 주요 의제였던 “노동자의 인권 신장”과 “국가에 의한 폭력의 저지”로부터 “노동자의 인권 신장”은 퇴조하고 “과거사와 국가폭력의 규명”은 여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일제의 억압과 독립운동”을 덧붙인다면 “일제와 과거 권위주의 국가에 대한 재조명”이 압도적(9편)으로 나타납니다.

“탈북자와 난민”을 포함한 소외계층, 고령자, 중환자, 장애인 등 우리 사회의 “Minority에 대한 인권침해”도 같은 비중(9편)으로 다루어졌습니다. 전자는 여전히 과거사의 해결이 우리 사회의 주된 관심이라는 관점이고, 후자는 오늘날의 문제, 그중에서도 소수자로 포괄될 수 있는 여러 계층의 인권개선이 미래 사회를 지향하는 중요한 관점이라 풀이됩니다.

이러한 경향이 뚜렷한 가운데 저희 심사위원들은 2019년 제17회 언론인권상 본상을 지방에서의 국가폭력 희생자들, 역사의 피해자들의 인권과 삶을 다룬 KBS 대구 특집 10부작 <기억, 마주서다> 제작팀에게 수상한 것과 달리, 2020년 제18회 언론인권상 본상은 한국 노인요양의 현실을 직접 요양보호사로 일한 경험과 수많은 요양보호사 및 관련자 인터뷰를 통해 생생하게 그린 한겨레의 <대한민국 요양보고서>의 제작진(권지담, 이주빈, 황춘화, 정환봉)에게 수상하기로 하였습니다. 과거에 대한 성찰보다는 미래사회의 설계가 더욱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할까요?

[본상] 한겨레 기획보도 <대한민국 요양보고서>(권지담·이주빈·황춘화·정환봉)

본상 수상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권지담 기자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 240시간의 교육을 받으려 3개월간 요양보호사 교육원에 다닐 때부터 매일 기록한 취재일기가 100장이 넘으며, 자격증 취득 후 인천과 부천, 두 곳의 요양원에 잠입 취업을 해 한 달간 직접 요양보호사로 일한 뒤 폰 녹취만 115개라고 합니다.

권 기자는 요양원은 ‘감옥’으로 묘사하고 ‘멈춰야 해방되는 곳’이라 했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정에 인권은 뒷전이고, 식사는 빨리 하도록 독촉을 받고, 대변이 묻어도 방치되어 ‘돌봄’은 없고 ‘효율적 수용·관리’뿐만 있다고 비평하고 “살려고 오는 곳이 아니라 죽으려고 오는 것”이라는 수용자들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요양보호사 대부분이 50대 여성으로서 자격증을 따 취업해도 최저임금 정도를 받으며, 부모상을 당해도 하루 휴가만 허용되는 열악한 노동조건도 고발하였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은 돌봄·허드렛일 육체노동을 하면서 “노인학대 의심”도 받는 감정노동을 하면서 “쉬는 날에는 병원에 가는 날”이라는 현실을 전하였습니다.

한편, 방문요양센터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이주빈 기자는 경남, 강원, 충청, 경기, 서울 지역의 방문요양보호사 14명을 만나 최소 3시간 이상 깊이 있는 인터뷰를 하고, 또 방문요양보호사 216명을 설문 조사해 이들의 노동 환경을 분석해 기사에 담았습니다. 이들은 낮은 임금, 수급자와 가족의 갑질, 성희롱에 시달리며 마치 가정부 취급도 당하는 실태를 고발했습니다. 심지어 “어르신 돌보러 왔는데 받을 매라고요?”라는 절규도 전하였습니다.

취재팀은 구조적인 비리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8년 장기요양기관 836곳을 점검한 60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결과보고서를 모두 분석해 보도하였

습니다. 조사대상에 오른 4%가 채 안 되는 장기요양기관의 1년 평균 부당청구 금액이 94억원 사실을 확인하고, 유령직원들을 동원하는 방법으로 인건비를 속여 국민의 건강보험료를 빼돌리는 구조를 밝혀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시설을 상대로 고발 및 수사의뢰를 해 확정판결이 난 판결문 39건도 단독 입수해 분석하였습니다.

이처럼 취재팀이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8개월간의 취재한 끝에 3부 8회에 이르는 <대한민국 노인요양 보고서>가 완성됐습니다. <대한민국 요양보고서>가 나온 이후 독자들의 관심은 뜨거웠습니다. 언론 등 여론의 장기요양제도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대한민국 요양보고서>는 이처럼 우리 사회 ‘불편한 진실’인 노인 요양 문제를 드러냄으로써 “노인 돌봄은 현재 겪고 있거나, 곧 겪게 될 모두의 문제”라는 공감대를 만들었습니다. 정부의 변화도 이끌어냈습니다. 한겨레 보도 이후인 2019년 6월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노인장기요양기관 비리 근절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요양보고서>는 이미 다수의 언론상을 수상했습니다.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이미 57만명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만 2025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000만명이 넘는 초고령사회를 눈앞에 둔 한국사회에 한겨레가 이처럼 입체적이고 다방면에서 다룬 탐사보도에 언론인권센터는 2020년도 언론인권상 본상을 시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특별상] KBS 제주총국 보도국 탐사 K팀(강인희·조세준·문중영) <기다리다 죽는 사람들> 연속보도

KBS제주 탐사 K팀은 제주대학교병원과 지역응급센터인 서귀포의료원, 권역응급센터인 제주한라병원 등 3곳의 협조를 얻어 4회에 걸쳐 제주지역 중환자실 실태와 중증응급의료 체계를 되짚고 더 나아가 지역에 맞는 현실적인 대안을 고민하였습니다.

중환자실이 부족해 전원을 가지 못하고 숨진 85살 할머니와 중환자실이 부족해 응급실에서 수술을 받는 중증외상환자와 보호자 등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늘리면 늘릴수록 적자인 중환자실의 수익구조, 더 나아가 간병비 부담으로 인한 일반실 입원 거부, 주치자와 무연고자의 중환자실 차지 등 중환자실 부족 실태는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와 엮여 있었습니다.

2016년 제주지역 6개 종합병원 중환자실 병상 수는 135곳이었는데 해마다 줄어 2018년 120곳이 된 반면, 뇌졸중이나 중증외상, 심정지 등 중증 응급질환자는 2014년 5천587명에서 2017년 1만 679명으로 매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주지역 43개 읍면동 가운데 16곳이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황과 하루 17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체류하고 있는 섬 지역 특성까지 고려하면 중환자실 부족 문제는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중환자실의 경우 면적이 입원실보다 1.5배 넓어야 하고 병상 수에 따라 고가의 의료장비와 의료진을 확충해야 하므로 중환자실 병상을 늘릴수록 적자라는 것입니다. 현재 제주지역 중환자실 전담전문의는 3명에 중환자실 간호사는 2016년 159명, 2017년 152명, 2018년 148명 등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중환자실의 열악한 근무여건과 낮은 임금체계, 고된 노동 탓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생생한 현장의 의료 실태는 물론 중환자실 부족의 구조적인 원인과 제주지역의 한계를 지적하고, 나아가 제주지역에 맞는 중증 응급의료 체계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생사를 가르는 현장에서 취재 윤리를 잘 지키며 보도하였고, 이후 제주도와 제주지역 종합병원이 협력해 제도 개선에 나서는 등 의료 인권 확대에 기여한 점, 단순 비판과 문제 들추기를 넘어 현장 의료인과 대안을 모색하면서 언론보도 관행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높이 평가하여 제18회 언론인권상 특별상을 시상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상] MBC 보도국 인권사회팀(이유경·남효정·홍의표·윤상문) <장애인 인권 증진 리포트> 시리즈

이 시리즈는 [소수의견], [당신뉴스], [바로간다] 등 3-5분짜리 리포트를 만들어 강하게 메시지를 전하려 하였습니다. [소수의견]에서는 차별당한 장애인 당사자를 사례로 내세우며 ‘불쌍한 장애인’의 프레임에 가두는 기존 보도와 달리, 이 리포트에선 장애인 당사자가 아예 기자로 나와 뉴스를 전하기도 합니다.

당사자가 직접 돌아다니면서 일상 속에서 맞닥뜨리는 차별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담았습니다. 그 덕분에 시청자들은 대중교통 이용, 손잡이 점자 표지판, 화장실 세면대, 음료 캔 등 우리 일상에서 너무 당연한 것들이 장애인들에겐 어떤 제약으로 돌아오는지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시각장애인 버스 이용 문제를 다룬 두 번째 보도에선 아예 당사자가 직접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영문과 대학생인 당사자가 직접 사람들을 모집하고 기계를 개발하는 모습을 통해 지자체나 정부가 대중교통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현실을 적극적으로 지적한 것입니다.

[바로간다]와 [당신뉴스]에서는 지적장애인 모자의 노예생활 16년간의 노동착취에 대한 법률구제에서 법원이 비장애인의 60%만을 인정한 데 대해 비판을 가했습니다. [소수의견]과 [탐정M]에서는 장애 특성 상 휠체어를 탈 수 없는 중증 뇌병변 장애인에 대한 콜택시 탑승 거부에 대한 법률구제에서 지자체와 법원이 장애인권 감수성이 현저히 낮다는 것을 고발했습니다.

[소수의견]에서는 장애인들도 헛갈리지 않게 “투표용지에 그림을” 넣어 참정권 행사를 용이하게 해달라는 요구를 실었습니다. [당신뉴스]에서는 뇌병변장애인이 동네 주민센터에서 ‘말’로 의사소통이 안 된다는 이유로 간단한 인감증명서 발급을 거부당했습니다. 간단한 손동작, ‘문자’를 ‘음성’으로 변환해주는 스마트폰 어플을 사용하면 비장애인과도 소통이 가능하다는 활동지원사의 설명은 전혀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뇌병변 장애를 잘 알지 못하는 시청자들을 위해 당사자의 기계음을 있는 그대로 뉴스에 전달했습니다. 방송 뉴스에서 기계음 싱크를 내세운 건 처음이었고, 사람들은 그 메시지에 더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취재팀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 혹은 그릇된 인식과 관련된 부조리들을 하나하나씩 끄집어내 공론화하였고 문제 해결을 위한 성숙한 대안을 제시한 공로로 제18회 언론인권상 특별상을 시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에필로그]

본상과 특별상은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신문, 중앙방송, 지방방송이 골고루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정한 본상과 특별상 이외에도 심사위원 다수가 아쉬워하는 작품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가족 살해 후 자살하는 가장과 370명의 무연고 죽음을 연속 보도한 국민일보 이슈&탐사팀의 <비정상적 죽음 기획 시리즈>입니다. 이 시리즈는 “한국판 잔혹극 살해 후 자살”이라는 제목으로 ‘부모 죽음에 강제 동반된 아이들’, ‘어른들의 이유로 빼앗긴 생명권’, ‘유독 많았던 채무의 늪’, ‘분노 절망 우울 속 감정살인’, ‘사건 그 후,

가족들 이야기’, ‘외면하고 방조한 사회’,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들’ 등 7회를 계속하였고, “빈곤의 종착지, 무연고 죽음 370명의 기록” 편에서는 ‘가난해서 버렸고, 가난해서 죽었다’, ‘무연사(無緣死) 마지막을 추적하다’, ‘빈곤에 떠밀린 무연인생(상)-사고’, ‘빈곤에 떠밀린 무연인생(하)-해체’, ‘무연고 사망은 오늘도 계속된다’, ‘무연고 장례 40일간의 기록’ 등 6회를 계속한 대작이었습니다.

이 시리즈를 위해 망자의 생애사를 재구성하기 위해 접촉한 유족, 지인, 전문가 등이 400명 가까이 된다고 하며, 단편적 사건의 서술보다는 구조적 문제를 분석하고 지적하는 데 초점을 뒀습니다. 이 수많은 죽음은 일인당 국민소득 3만불을 구가하는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을 부각하여 헌법이 제시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하여 시상의 후보로 끝까지 경합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겨레 김완, 오연서 기자의 <텔레그램 비밀방 불법 성착취>도 비상한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겨레 김완 기자는 먼저 “청소년 ‘텔레그램 비밀방’에 불법 성착취 활개친다”, “텔레그램 비밀방, 마약까지 손댔다”로 시작해 경찰이 수사를 나서도록 했습니다. 그 후 오연서 기자와 함께 “텔레그램에 퍼지는 성착취” 4회 연쇄기획 보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신변의 위협까지 받았습니다.

이 시리즈는 새로운 수법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이뤄지는 여성 성착취 문제를 본격적으로 처음 보도해 큰 사회적 파장을 이끌어냈고 경찰 수사와 사회적 여론 형성에 크게 기여하여 끝까지 경합하였으나 한겨레에 이미 본상이 배정됨으로써 양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추가한다면 응모작 28편 중 두 편만 제3의 단체에서 추천하였으며, 나머지는 모두 자사의 대표, 부장 등에 의한 ‘셀프 추천’이었음을 언급하겠습니다.

2020년 3월 4일

(사)언론인권센터 제18회 언론인권상 심사위원회